

BMW, 신규 브랜드 ‘알피나’ 출범 본질·품질 집중… 럭셔리시장 공략

핵심가치 ‘품격을 높이는 여정’
강력한 성능·편안한 승차감 초점
2028년 최상위 럭셔리 라인업 완성

“최근 럭셔리 소비는 과시보다 절제된 품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BMW 알피나는 이런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올리버 필레히너 BMW 알피나 브랜드 총괄 부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페스타홀에서 진행된 BMW 알피나 브랜드 설명회에서 최근 럭셔리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BMW그룹은 약 25년 만에 새로운 독자 브랜드 BMW 알피나를 공식 출범시키며 최고급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BMW와 롤스로이스 사이의 럭셔리 시장을 잇는 전략 브랜드로 육성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올리버 부사장은 “알피나는 성능과 최상의 주행 안락함이 균형을 이루는 자동차로 ‘세레니티(Serenity)’라는 고요한 평온함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라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절제된 럭셔리리는 단순한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페스타홀에서 진행된 ‘BMW 알피나 브랜드 설명회’에서 BMW 알피나 총괄 올리버 필레히너 부사장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유행이나 과시보다 본질과 품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MW 알피나는 브랜드 핵심 가치로 ‘품격을 높이는 여정(Elevating Journeys)’을 제시했다. 단순한 스포츠 주행보다 장거리 이동에서의 안락함과 고속 안정성, 정교한 엔지니어링에 최적화됐다. 특히 ‘스포츠가 아닌 속도(Speed, Not Sport)’라는 철학 아래 강력한 성능과 편

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BMW 7시리즈와 X7을 기반으로 한 알피나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차에는 BMW 알피나 전용 트윈와워 터보 V8 4.4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향후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추가될 예정이다. 외관은 데코 라인과 20스포크 휠 등 브랜드 고유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엠블럼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BMW코리아는 BMW 알피나를 통해 국내 최고급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2027년 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고, 같은 해 하반기 전국 7개 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초 신모델을 출시해 최상위 럭셔리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김강민 BMW 코리아 세일즈팀장은 “고객들은 브랜드 이름보다 상품성과 럭셔리 경험, 개성 표현 등 새로운 가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BMW 알피나 역시 이러한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D, 상반기 100억 이상 실적개선 성과

2분기 매출 5.6조, 영업손실 1077억
희망퇴직 비용 영향… 본업 흑자 유지

LG디스플레이가 22일 열린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력 구조 조정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24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2분기 실적에 일회성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 4년간 2분기에 고질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일회성 비용 제외시 2분기 적자 상황에서 탈피한 것이 꽤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5조6121억원, 영업손실 1077억 원 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와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측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사업 본연의 수익성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상반기 전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100억원 이상의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계절적 비수기라는 특성과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OLED 중심의 사업 구조 규모와 성과가 말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 사업 확대 전략을 이어간다. 아울러 OLED 모니터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전체 대형 OLED 출하량에서 OLED 모니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 초반에서 올해 약 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성장세에 맞춰 고부가 제품 중심의 출하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OLED 사업에서는 기존 생산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투자도 병행한다.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성수기 효과를 기대했다.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대형 OLED와 모바일 OLED 출하 확대가 예상되며 전체 출하 면적은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수준 증가하고, 면적당 평균판매가격(ASP)은 모바일 OLED 성수기 영향으로 10% 후반 수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현정 기자

삼성중-S&L, FSMR 플랫폼 개발 ‘맞손’

(부유식 소형모듈원자력발전)

차세대 해상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개념설계를 완료한 부유식 소형모듈원자력발전(FSMR)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차세대 해상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기업 사전트앤런디(S&L)와 범용 FSMR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상호 우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F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해상 부유체에 탑재해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해상 원전 플랫폼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육상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전력망 연결이 제한적인 해안·도서 지역의 대안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념설계 단계인 FSMR 프로젝트를 실제 상업 배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특정 원자로 노형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FSMR 표준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해 선주와 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김경희 삼성중공업 미래사업본부장(왼쪽)과 시벤 술카(Shiven Sulka) 사전트앤런디 최고원전책임자가 상호우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 F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플랫폼 개발부터 인허가 지원, 건조 계획, 해역 배치 전략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협력한다. 국제 및 미국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 완성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자사의 해양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역량과 S&L의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해상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AI·모빌리티 등 차세대 OLED 제품 대거 공개

K-디스플레이 2026

삼성D 센터페시아 시제품 첫 공개
LGD 27인치 5K OLED 패널 선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K-디스플레이 2026’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를 겨냥한 차세대 OLED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휴머노이드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게이밍·IT용 OLED 등 차세대 응용처를 앞세워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디스플레이 2026’에 참가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eyond Screens, into Intelligent Display’를 주제로 차량용과 AI 디바이스, IT 제품 등을 중심으로 OLED 기술을 선보인다.

차량용 전시에서는 HIAA(Hole in Active Area) 기술을 적용한 센터페시아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화면 내부에 지름 80mm의 ‘빅 홀’을 구현해 기어 변속 다

이얼과 공조장치 송풍구를 디스플레이 안에 배치했으며, 새로운 슬라이더블 CID도 함께 전시했다.

AI 분야에서는 6.9형 OLED를 적용한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와 원형 OLED를 적용한 ‘컴패니언 AI 토이’, AI 펫봇, AI 펜던트 등을 공개했다. IT 제품으로는 4K 360Hz QD-OLED 모니터와 DisplayHDR True Black 1400 인증을 획득한 탠덤 OLED 노트북 패널 등을 전시한다.

스마트폰 OLED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무편광판 OLED 기술인 ‘LEAD 2.0’과 플렉스 크로마 픽셀, 플렉스 매직 픽셀(FMP) 등을 활용해 색재현력과 프라이버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OLED와 QD-OLED가 단순한 화면을 넘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차량, AI 기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일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 디스플레이(Beyond Display, A Window to Connection)’를 주제로 OLED 제품군과 기술을 선보였다.

비전(Visionary) 존에서는 83인치 OL

ED TV 패널을 비롯해 모니터와 IT용 OLED 패널로 미디어월을 구성했으며, 휴머노이드용 P-OLED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홈(Home) 존에서는 24.5인치 540Hz 게이밍 OLED와 27인치 DFR 720Hz 게이밍 OLED, 39인치 5K2K 게이밍 OLED 등을 전시했다. 또 프라이머리 RGB 탠덤 2.0 기술을 적용한 OLED TV 패널을 통해 최대 4500니트 밝기와 저반사 특성을 소개했다.

워크(Work) 존에서는 27인치 5K OLED 패널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AI 기반 고성능 콘텐츠 제작 환경에 적합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워치용 OLED 등 IT 제품군도 함께 전시했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48인치 P2P(Pillar to Pillar) 디스플레이와 18인치 슬라이더블 OLED를 적용한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혁신 기술을 통해 시장 차별화를 실현하고, 고객 가치 중심의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 가속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그룹,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

지역제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포스코그룹이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를 열고 지역 제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22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실용화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북도, 포항시와 공동 조성한 제조 스타트업 육성 시설인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074㎡ 규모로 조성됐으며 최대 1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냉각수와 압축공기, 수소·질소·산소 등 6대 산업가스를 비롯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공용 인프라를 갖췄다.

RIST는 첨단 신소재와 에너지·환경 분야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신뢰성 평가, 공정설계 등을 지원한다.

포스코그룹은 유망 벤처 발굴과 연구 개발, 설비·공정 스케일업, 사업화, 해외 판로 확보 등을 맡는다. 중기부와 경북도는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은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 투자 유치, 사업화, 공장 설립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혜은 기자